



책 속의 밑줄 긋기

“이것이 나이고,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며, 인생살이나 가정 살림, 회사나 나라를 운영하는 일의 주인공이 전부 나 하나라는 것. 이것 하나 깨우쳐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면 끝납니다. 하근기(下根機) 중생을 인도한다고 열여 놓은 온갖 방법(方便)에 꼬달리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설〉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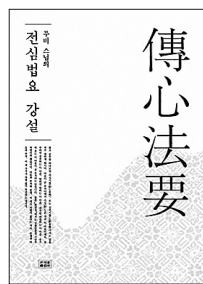
“별가가 다 써 놓으니, 모든 대중이 다 놀라서 서로들 응성거리며 말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어찌 오랜 시간동안 저 사람이 육신보살(肉身菩薩)임을 알지 못하였던가?”

〈법보단경〉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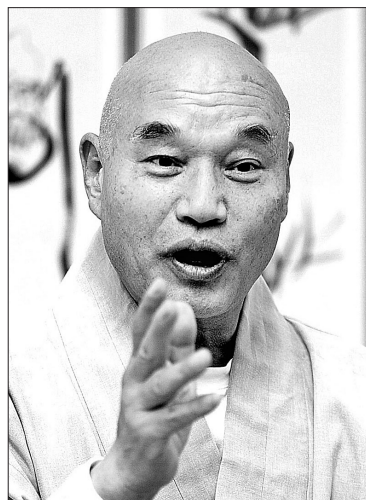
Books

오직 一心 일뿐 다른 법은 없다

김주일 기자 kimj4217@ryunbul.com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무비 스님 강설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8천원



저자인 무비 스님

진짜 불교는 무엇인가,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부처님과 일체중생이 오직 한마음이요, 다시 다른 법은 없다.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기 위해 장소를 물을 때마다 ‘영험함’을 기원한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떠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험함을 경험치 못할 때에는 끝내 개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의미 없는 일일 뿐, 불교의 가르침은 그러한 데 있지 않다.

그렇다면 불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즉심시불(卽心是佛)’, 또는 ‘심즉시불(心卽是佛)’이란 말을 자주 접한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은 선종의 대지라 할 수 있다.

唯此一心(유차일심)이 卽是佛(즉심시불)이니 佛與衆生(불여중생)이 更無別異(경무별이)어늘 <오직 이 한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다시 다른 것이 아니거늘>. 특히 마음과 부처, 중생은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곧 부처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는 비단 선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비 스님은 이 책서 초기 불교뿐 아니라 대승불교, 밀교에 이르기까지 일심(一心), 즉 한마음의 도리를 제외하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심이야말로 불교의 종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심에의 가르침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어록이 바로 황벽 회운 선사와 <전심법요>이다.

이 어록은 중국 조사선의 핵심대의를 잘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한국불교 선행에 큰 영향을 미친 임제종을 대표하는 선어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선의 요체를 간명하고 쉬운 언어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 어록서 선사는 ‘유전일심 경무별법(唯傳一心 更無別法)’, ‘오직 한마음만 전할 뿐 다른 법은 없다.’라는 대지 아래 처음

부터 끝까지 우리 안의 불성, ‘일심’과 ‘무심(無心)’에 대해 강조한다.

“若不決定信此是佛(약불결정신차시불)하고 而欲著相修行(이욕착상수행)하며以求功用(이구공용)이면 皆是妄想(개시망상)이라 與道相乖(여도상괴)니라. 만약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형상에 집착하며 수행으로써 복

조사선 핵심이 담긴 회운 선사 어록

한국불교 선행에 큰 영향 미쳐

무비 스님의 자세한 해설로 풀이

저자 체험과 버무린 감로법문도

이나 공덕을 구하려 한다면, 모두 다 망상에 빠지게 되고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게 된다.”

황벽 선사는 이런 이치를 믿지 못하고 그 밖의 것을 향하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펼친 방편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주문한다. 이미 부처는 우리 안에 여여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상 얻을 것이 무엇 있겠느냐는 말이다. 황벽 선사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중생은 형상에 지나지 않는 불상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고 있지 않나. 선사의 이 말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수행과 수행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황벽 선사의 제자인 배후 거사가 선사의 법문을 기록해 <전심법요>를 간행한 지 1,15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에서도 <전심법요>를 많은 수 소개했으며, 시중에 도서로 출간된 바 있지만

이처럼 생생하고 꼼꼼하게 강설한 책은 유일하다. 특히 이 어록을 강설한 무비 스님은 통도사·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 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무원장, 동국여경원장 등을 역임한 한국불교의 대강백이라는 점에 눈에 띈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이 지난 <전심법요> 강의를 통해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내용을 재편집해 지면에 옮긴 것이다. 그래서 무비 스님이 마치 옆자리 가까이 앉아 손가락으로 짚어 주며 설하듯 생생한 어조로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그동안의 해설서는 많은 주가 달렸지만, 매우 간략한 소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의 꼼꼼한 성격을 알려주듯, 한 단락 한 문장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설명하되, 스님 체험과 그간의 생각들이 함께 버무려져 자칫 생소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풀이했다.

“본래 다 구족돼 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을 사람이라는 위대한 존재의 가치를 몰라 공덕을 닦느니 하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모든 행복과 평화, 성공이 자신 안에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무비 스님은 강설 중 우리 삶의 감로가 되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신도들이 해 온 수행과 수행 생활에 대한 내용이요, 수시로 분별과 차별 등에 휘둘러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는 우리 삶에 대한 내용이다.

“불교는 학문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데 최상의 열쇠는 마음의 도리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무비 스님의 말처럼 불교는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이러한 뜻은 황벽 선사의 어록 곳곳에도 엿보인다. 선불교의 종지는 곧 ‘즉심시불’이라 하지 않았는가. 무비 스님은 ‘우리가 곧 부처’임을 강조하며, 이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개개인임을 황벽 선사의 말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 핵심에는 ‘마음’이 있다. 바람 불어 물결이 일듯 물 아닌 것이 없고, 나무로 불상을 깎거나 코끼리상을 깎아도 모두 나무 향이 나며,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 만들든 녹이면 결국 금인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여여함을 알고, 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국 행복을 얻는 최상 승 책임을 일깨운다.

‘성품을 보아’ 단박에 활짝 깨닫는 돈교법문

법보단경

육조혜능 저음 | 이경석 옮김
비움과 소통 | 1만 8천원



《육조법보단경》은 줄여서 <육조단경>이라고도 하고 <법보단경> 또는 <단경>이라고도 한다.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로부터 제 6조가 되는 조계 육

조혜능대사께서 설한 법문을 그 문인들이 기록한 어록이다. 불법인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법보 또는 경이라 하는데, 6조대사께서 설한 불심의 법을 후학들이 높이 받드는 뜻으로 ‘경’이라 한 것이다.

6조 혜능대사의 종지가 실려된 <법보단경>은 종보본, 고려 연우본 또는 덕이본, 도원서대승본, 해소서흥선사본, 돈황출토본 등 5종의 이본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때 판본으로 연우병진본이라는 덕이본이 유통돼 왔는데, <단경>을 애독하

고 깊이 탐구한 보조국사의 발문이 유명하다. 분서는 덕이본을 근거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면서도 실제 생활하는 가운데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보단경》은 조계산 대법사의 무상계단서 무상계와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한 내용으로 육조대사의 문인인 법해 선사가 기록한 선어록이다. <법보단경> 편찬 간행은 당시 대사의 초기 호법왕이라 할 수 있는 자사 위계 발원에 따라, 법해선사가 편찬한 것으로 단경 본래의 기록을 충실히 살피도록 한 것이다.

《법보단경》 요지는 우주법계의 근원이요 근본바탕인 참마음을 밝힌 자성정 자성반야와 그 수행법으로써 망념을 여윈 무념을 종으로 삼고, 일체의 현상을 초월한 무상으로써 체를 삼으며, 일체에 집착 없는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데 있다. 지혜로 이 마음을 관조해 일체가 ‘진공 묘유’함을 요

달하면 일체법에 걸림이 없고 간택이 없는 본래 정정·공작한 진여성에 합하게 되어 곧 무념, 무상, 무착의 반야삼매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선의 핵심 종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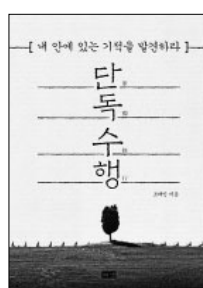
6조대사는 “좌선은 본래 마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조출함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또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 경계에 생각(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一念不起)이 ‘좌(坐)’이며, 본래의 마음(自性)인 그 근원의 성품이 어지럽지 않음을 보는 것이 ‘선(禪)’이라 하셨다. 부처님께서 온 우주의 당체이자 근본 바탕인 나의 근원과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선이라면, 그 깨우친 바를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이 교(敎)라, 선과 교가 곧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교입선’은 경을 무조건 보지 말고 선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經)을 알았으면 목적지로(선) 곧장 들어 가라는 뜻이다.

육간이인 이경석 법무법인 법산 대표는 “혜능대사의 설하신 법에 대한 밑줄이 한 구절 한 구절 그대로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기에 그 뜻을 훼손치 않으려 했고, 고군 덕이 스님께서 평생을 노력 끝에 역으로 이른바 ‘덕이본’을 기초로 한글로 번역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20년 단독 수행으로 자기 내면의 기적 발견

단독수행

조해진 저음 | 해냄 펴냄 | 1만 4500원



“요즘도 바쁘시지요?”라는 말이 잘 지 내시느냐는 인사가 되어버린 시대, 존각을 닦아 일하지 않으면 웬지 허전하고 뭉뚱어진 듯한 기분 때 매일의 일정을 빼

곡하게 채우고야 마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시점이, 밖으로만 뻗어나가는 시선이 다잡아 내 안에 담긴 열매를 찾아볼 시기가 아닐까?

기독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방송작가이자 소설가로 열정적인 삶을 살던 어느

날 문득 세상에 탈진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무 계산 없이 명상의 길로 들어간 사람, 20여 년 가까이 자신의 탐구에 몰두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 <단독수행 : 내안의 기적을 발견하라>는 방송작가이자 소설가로 활발하게 활동한 조해진 작가의 마음 수행기로, 바로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려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중국 절강성 닝보로 떠나 20여 년 동안 단독 수행자로 활동하고 돌아온 작가가 자기 안에 쌓인 고뇌를 물고래미 들어다보며 우주의 근원을 생각하고 자신의 중심의 틀여다보라는 메시지를 담은 원고를 집필한 것은, 오랜 수행 끝에 얻은 결실을 나누고자 함이다. 작가는 집필을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 마음속에 응축된 금강의 원리를 담았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분돼 있으며, 마치 개인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명상의 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한

다. 작가가 큰 영감을 받은 마조 선사나 달마 대사, 티베트의 설화 등을 불교와 라마교의 명상법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금강경> 주요 개념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됐다는 장점이 있다. 작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 왜 우리가 수행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세상사에 시달리며 고통의 파고를 넘는 현대인들에게 자아를 찾아 내면을 발전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이 책은, 명상에 관심 있는 불자뿐 아니라 마음공부를 추구하는 독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명상에 대한 내용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가뉘어가고 싶은 독자들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영혼의 양식이다.

김주일 기자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실용의식 : 천도제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 ◆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 수 강 료 : 월 10만원
-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 ◆ 문 의 처 : 010-5065-5690

근 화 학 당

- ◆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 ◆ 강 사 : 추송 ◆ 수강료 : 월 10만원
- ◆ 문 의 처 : 010-8948-7948
- ◆ 매 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송 합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 易學 강좌

논리로 푸는 사주학 과학역학 ‘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 ‘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 ‘석하리듬’

구 분	요 일	시 간	개 강
초급(주간)	매주 (火)	15:00 ~ 17: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 (火)	19:00 ~ 21: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 (水)	19:00 ~ 21:00	10월 21일
중급(주간)	매주 (木)	10:00 ~ 12:00	10월 22일

- 기간 :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 교 수 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심원 남상용 교수, 교원 설운스님, 강세명 교수
-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 출구(지하철 9호선/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 자격증 과정 겸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 02)3443-4984

松 根 油

송근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썩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